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226-0180

광주 25/32℃ 목포 25/30℃ 여수 25/29℃
단기 4343년 (음력 7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63호 1판 2010년 8월 27일 금요일

문화예술 처참한 지방소외

문예진흥기금 730억 중 462억 서울 독식
광주 1.8%인 13억·전남은 12억 지원 뿐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서울 독식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26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전국예총대표자회의에서 부산예총 최상윤 회장이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0 상반기 문예진흥기금 지역별 지원내역' 분석 결과 총 지원금 730억원 가운데 무려 63.3%인 461억 9000만원이 서울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와 16개 광역시·도에 분배된 금액은 269억원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은 전체 예산의 1.8% 수준인 13억원에 그쳤으며 전남은 1.7%인 11억 9000만원 수준이었다.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경기 지역이 49억2000만원(6.7%)이었으며 최하위인 충남 지역은 0.2%인 1억74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2009년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총 613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서울이 68.4%인 419억 8000만원을 가져갔고 광주는 1.6%인 9억8500만원, 전남은 1.4%인 8억84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129개 예총으로 구성된 전국지역예총협의회는 문화관광체육부와 국회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이같은 실태를 알리고 지역 할당제를 제안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재고쌀 대란 출구는 있다

삼계탕·죽 제조업체 한 곳서만 年 400t 사용
떡·과자·막걸리 등 지역가공업체 육성해야

올해만 전국적으로 140여만톤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쌀 재고가 해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쌀 대란'을 해결할 대안으로 쌀 가공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부정기적인 대북 쌀 지원, 제3국 공여 등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나주시에 있는 닭·오리 제품 생산회사인 화인코리아는 쌀을 원료로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쌀을 대량소비한 데 이어 수출길을 열고 있다. 삼계탕·인삼닭죽·홍삼오리죽 등 제품생산에만 올 현재 160t의 쌀을 사용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원료로 쓴 쌀만도 300여t에 달하며, 내년에는 430여t의 쌀을 사용할 계획이다.

26일 나주시 금천면 (주)화인코리아 제품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쌀을 원료로 삼계탕을 만들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인코리아는 삼계탕 등으로 일본·대만 시장을 공략해 지난 2007년 264만달러, 2008년 269만달러 수출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600만달러 규모 수출성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지역내 쌀 가공산업이 안정적인 쌀 소비처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역 쌀 가공업체와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 현재만도 45만6000여t에 달하는 전남도내 쌀 재고량을 크게 줄이고, 쌀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끌어올리는 '일석이조' 방안이라는 것이다. 농림부 등은 벼 10kg을 쌀로 팔면 2만원대에 불과하지만, 햇반으로 가공할 경우 10만원, 떡은 12만원, 술은 21만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주목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떡산업·햅쌀 막걸리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쌀 가공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해 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이사는 "정부가 제3국에 쌀을 공짜로 주는 방안까지 고려하면서도 정작 쌀을 농가로부터 구입, 제품화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쌀 수급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쌀 가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3524명 고향 대신 타지 고교 진학

전남지역 일선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고장 고교 보내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진학생이 매년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2개 시·군 고교 신입생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타 시·군이나 시·도로 진학한 학생이 각 3166명과 358명 등 모두 35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교 입학생 2만4546명의 14.4%로 학생 100명중 14명 가량이 내 고장 학교에 다니지 않는 셈이다. 타 지역 진학생은 2007년 3366명에서 2008년에는 3852명, 지난해는 3532명 등 매년 3000명을 웃돌았다.

지역별로 무안군이 586명 중 235명(59.9%)이 타 시·군으로 진학했으며 고흥 30.1%, 영암 36.5%, 해남 29.8%, 신안 29.7% 등이다. 반면 순천은 6%만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여수(7.6%), 담양(7.4%), 영광(8%), 장성(8.6%) 등이 내 고장 고교 진학비율이 높았다.

목포와 여수, 순천 등 고교 평준화 지역을 선호하는 학생이 적지 않고 담양 창평고, 장성고, 화순 능주고 등 이른바 명문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지역에 학생이 몰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흥, 영암, 강진 등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장학재단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연간 수억원의 기금을 학교 시설 지원과 장학금 지급 등에 써오고 있지만 학생 끌어안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화순군은 오는 2학기부터 지역내 고교생 전원에게 수업료를 지급키로 하는 등 파격적 지원 을 제시,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89%에 그치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중학교 졸업생 795명 가운데 83명이 타 시군 학교에 전출했으며 탈락한 68여명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정일 전격 訪中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새벽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 5월초에 이어 석달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례적 성격의 공식 방문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 하에 추진된 방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0시대에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 자강도 만포를 거쳐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을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지린시에 도착, 선친 고(故) 김일성 주석의 모교와 항일유적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일연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2회 방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방중 목적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달 초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문제를 중국측과 협의하기 위해 급박하게 방중을 추진했다는 관측이 정부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GWANGJU BIENNALE
미리보는 광주비엔날레

실크 스크린 앞 순교자 조각상 의미는

▶카타리나 프리치 '성 카타리나와 두 번째 사진'

담쟁이 덩굴이 그려진 푸른 실크 스크린 앞에 순교자 카타리나 성인의 형상을 새긴 조각상을 세워 놓았다. 작품 속 카타리나 성인은 백합을 들고 가시관을 쓴 기존의 모습을 따랐지만, 표면을 흰색이 아닌 온통 검은색으로 채색해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관람자 눈높이에 조각상을 설치, 성인의 조각에 담긴 인간성과 생동하는 이미지 간의 내적인 긴장을 보여준다.

한편 작가는 지난 1987년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 성모상 조각을 도로 위에 세워 놓아 성모상의 얼굴이 지워지고, 낙서를 당해 종교계로부터 혹평을 받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축 자율형 사립고 지정
보문고등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입학문의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